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에 대한 小考*

— 자료의 사료적 가치, 구성 및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 승 석**

목차

- I. 머리말
- II.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과 그 가치
 - 1. 기존 한국화교 관련 자료 현황과 연구 실태
 - 2.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의 가치 : 화교 스스로의 생산물
- III.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의 구성 및 특징
 - 1. 서적일반
 - 2. 지도
 - 3. 연속간행물 및 기타
 - 4. 공문서
- IV. 맺음말 : 자료의 활용방안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A00002)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I. 머리말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른바 ‘화교화인(華僑華人)’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비록 단속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견지되고 있고 진행되어오고 있다. 물론, 화교화인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지역마다 혹은 국가별로 다소간의 편차가 존재한다. 화교화인이 중화패권주의 확산의 경제적·문화적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른바 ‘중국위협론’의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하면, 국민국가 단위를 뛰어넘는 초국적 차원의 새로운 세계질서 원리를 화교네트워크에서 탐색해보고자 하는 대안적 시선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¹⁾ 그런데 화교화인을 대하는 이러한 다양한 시선이 집중적으로 겨누고 있는 대상은 공교롭게도 주로 동남아시아나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해외 중국인이다. 이는 어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화인의 수나 그들의 거주연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은 여타 지역의 그것에 비해 압도적일 정도로 남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계화교화인의 사실상의 중심지가 바로 이들 지역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화인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학문적 전통과 나름의 학술적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반면, 세계화교화인의 중심에서 일부 비껴나 있다고 볼 수 있는 한반도 거주 화교에 대한 중국 및 서구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는 거의 전무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소략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한국의 연구자들조차 이른바 ‘한국화교’에 대한 학문적 열의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사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질적인 종족 및 문화와 공존하는

1) 송승석, 『한국화교 연구의 현황과 미래—동아시아 구역 내 ‘한국화교’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55호, 2010.12, 165쪽 참조.

것에 그다지 익숙지 않았던 한국사회로서는 화교란 꽤나 생경한 존재이고 사실상 관심 밖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단적으로 말해, 화교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낯선 존재인 것이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눈에 화교와 화교사회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사회’²⁾, ‘불가사의한 만년 이방인’³⁾ 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 한중수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화교자본’에 대한 유치의 필요성,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한중관계의 강화 및 다기화 등의 각종 현실과 맞물려 화교화인 내지 한국화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연구의 영역으로 확장, 심화되고 있고 관련 연구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화교에 관심을 갖고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는 이들이 첫 번째로 부딪치는 난관은 무엇보다 화교 관련 자료의 부족 내지 부재이다. 이는 국내의 거의 모든 화교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일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일정한 해소는 한국화교 연구에 있어 절실한 문제이자 시급을 요하는 중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한국화교 연구자들이 갈구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화교에 대한 막연한 거대서사를 넘어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생활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구술채록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화교들의 육성을 듣고 그 안에 내재된 화교들의 기억을 끄집어냄으로써 그들의 진솔하고 일상적인 삶의 고투와 희망을 기록하고 자료화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⁴⁾ 다만, 다양한 화교 군상들의 기억과 삶을 구술을 통해 채록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자료생성의

2)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台北: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1983), 1쪽.

3) 秦裕光, 『華僑』, 《중앙일보》, 1979. 9. 17.

4) 한국화교와 관련된 구술조사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2007년에 펴낸 『한국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송승석이 2012년 학교방에서 출간한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인천화교 손터준의 가족이야기』 등이 있다.

갈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관적이고 과편화된 기록을 넘어 객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기록 및 문헌과의 대비를 통한 검증과 총합이 뒤따라야 한다. 새로운 자료의 생성과 더불어 숨어있는 자료의 ‘발굴’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새롭게 발굴된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를 소개하고 그것의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봄으로써, 상기 문제들에 대한 일정한 해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물론, 인천화교협회가 소장하고 있는 각종 문헌·비문헌 자료에 대한 면밀한 고증과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서술을 통해 정리를 시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정정도의 역사적 정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초보적이거나 서술해두는 것이 후속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고 더구나 기왕 자료를 확보해 둔 터에 시일을 정하지 않고 마냥 방치한 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도 연구자의 소임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천화교협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일차적 검토를 통해, 그 자료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자료적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한 기초적 기술을 시도해보기로 하겠다.

Ⅱ.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과 그 가치

1. 기존 한국화교 관련 자료 현황과 연구 실태

기존의 ‘한국화교’⁵⁾연구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헌

5) 엄밀히 말해, ‘한국화교’라 함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한반도 남쪽에 거주하는 화교를 일컫음이 마땅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 이전시기 한반도에 거주하는 이른바 ‘조선화교’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한반도 북쪽에 거주하게 된 화교 즉, 이른바 ‘북한화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자료는 역사적으로 각 시기 정부 간에 주고받은 외교문서나 해당정부가 자체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한 정부문서 가운데 산견되는 화교관련 문건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일차사료로는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가 발간한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와 『구한국외교문서·청안(舊韓國外交文書·淸案)』 그리고 최근 동 연구소가 디지털아카이브 형태로 공개한 『주한사관당안(駐韓使館檔案)』 등이 있다. 『청계중일한관계사료』는 「분류목록」(제1권)과 「감오표(勘誤表)」(제11권)까지 포함하면 총 11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록된 시기는 1864년에서 1912년 3월 13일까지이다. 이는 청국정부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 당안 내의 조선당(朝鮮檔)과 외무부 당안 중의 상무(商務), 변무(邊務), 교무(僑務), 어염(魚鹽), 향운(航運) 등과 관련된 교섭 안건 등을 집성한 것인데, 이 가운데 화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교무 문건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⁶⁾ 『구한국외교문서』 가운데 8권부터 9권에 해당하는 이른바 「청안」은 조선정부의 통리기무아문 및 외부(外部)가 주조선 청국외교기관과 주고받은 외교문서로, 수록 시기는 1883년부터 1905년 10월까지이다.⁷⁾ 『주조선사관당안』은 1883년 이후 중국주한사관이 주고받은 문서들을 별도의 ‘주한사관당(駐韓使館檔)’으로 분류한 것으로,⁸⁾ 청말 뿐만 아니라 중화민국 시기 특히, 남경국민정부 시기까지의 당안까지 총망라되어 있어 일제강점기 조선과 중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시의 조선 화교연구에도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 현재 남경 제2역사당

는 이를 일일이 구분하지 않고, 전 역사에 걸쳐 한반도에 거주했고 거주하고 있는 화교 일반을 모두 아울러 ‘한국화교’로 통칭하도록 하겠다. 이 점, 널리 양해를 바란다.

- 6) 이정희·송승석,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교방, 2015), 21쪽.
- 7) 같은 책(2015), 21-22쪽 참조.
- 8) 김희선, 「근대 한중관계의 변화와 외교당안의 생성—‘청계주한사관보존당」을 중심으로」, 『중국현대사연구』 제30집, 2011, 35쪽.

안관에 『왕위교무위원회당안(汪僞僑務委員會檔案)』, 『왕위의교부당안(汪僞外交部檔案)』 등의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는 왕정위(汪精衛) 정권시기의 외교문서 및 화교 관련 문서 그리고 일본 도쿄 동양문고(東洋文庫)가 소장하고 있는 『중화민국국민정부(왕정위정권) 주일대사관 당안』 등에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에 거주한 화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와 기록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⁹⁾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외국영사관과 왕래한 문서를 모아놓은 『조선총독부 외사과 문서』나 당시 조선정부 및 대한제국 정부가 작성한 『고종실록』 그리고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른바 “동순태(同順泰)문서 66책”등도 당시 한반도에 거주한 화교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특별히 인천에 거주하는 화교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고 있는 사료로는 인천개항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의 사실(史實)과 족적(足跡)을 기록해 후세에 전한다¹⁰⁾ 명목으로 당시 인천부청(仁川府廳)이 1933년에 편찬한 『인천부사(仁川府史)』와 1887년 5월에서 1895년 10월까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인천항 감리(監理)에게 보낸 관문(關文)과 인천항에서 올린 보고 및 그에 대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제내(題內)가 함께 수록된¹¹⁾ 『인천항관초(仁川港關草)』가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자료들은 주로 19세기 말부터 1945년까지 한성(漢城)과 개항장 내 화상(華商)의 각종 경제활동, 화교와 조선정부(혹은 조선인) 혹은 화교와 일본 식민정부(혹은 일본인) 간의 분쟁과 충돌 그리고 그에 대한 각 정부 간의 조정, 타협, 중재 활동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귀중

9) 이상의 자료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이정희·송승석, 앞의 책(2015), 21-23쪽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10) 仁川府廳 編纂, 『仁川府史』(上), 1933, 「序」 참조.

11)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譯主 『仁川港關草』(上), 2009, 1쪽.

한 일차사료들이다.

그러나 이 중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 의해 작성된 공문들이고 대부분이 외교문서에 준하는 것들이라 사실 한반도 거주 화교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기록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한 중외교관계 정확히 말하면, 조선 및 대한제국과 청(淸), 일본 식민정부와 중화민국 간의 외교적 맥락 속에서 한국화교의 직간접적인 상황을 일별하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당시 화교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이나 일상사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이들 자료는 1945년 이전으로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그 이후 시기의 화교연구에 있어서는 별다른 도움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화교와 관련된 자료 상황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편이다. 일차사료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봐야 1950년대 타이완에서 발간된 『한국화교의 경제』¹²⁾, 『한국화교의 교육』¹³⁾, 『화교지—한국』¹⁴⁾ 정도의 보고서 성격의 간행물이 거의 전부이고 이마저도 식민지시기에 관한 기술은 대부분 일본식민당국의 조사 자료에 주로 근거하고 있고, 1945년 이후의 경우는 조선은행 조사부의 『재한화교의 경제적 세력』 등을 저본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¹⁵⁾ 이처럼 연구의 기초가 되어야 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아예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현 시기 한국화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책상 앞을 벗어나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 화교들을 대상으로 취

12) 盧冠群, 『韓國華僑經濟』(台北:海外出版社, 1956)

13) 張兆理, 『韓國華僑教育』(台北:海外出版社, 1957)

14) 華僑史編纂委員會, 『華僑誌—韓國』(台北:華僑史編纂委員會, 1958)

15) 王恩美, 『東아시아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 冷戰體制と「祖國」意識』(東京:三元社, 2008), 24쪽 참조.

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실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길 외에는 사실 특별한 연구방법이 없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구술을 통한 자료의 생성과 수집은 구체적인 사람을 상대로 사건이나 생애에 대한 진실 혹은 그 말의 진정성에 다가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지난한 작업이다. 물론 구술사 정리는 문헌사료의 제약과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근현대 역사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관련 연구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작업¹⁶⁾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개인의 기억과 집단적 사실 간의 충돌 가능성을 항시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구술이란 개인의 체험과 회고, 전언(傳言)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것의 정확성, 객관성, 공식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개의 구술사가 친필일률적인 개인사, 가족사에 그치고 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구술이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고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사료의 확보를 통한 보완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완전한 사료, 부정확한 기억의 총합 정도로 밖에 남을 수 없다. 숨어 있는 자료의 발굴이 새삼 중요성을 갖게 하는 대목이고,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의 발굴이 더욱 의미를 갖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2.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의 가치 : 화교 스스로의 생산물

최근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은 인천화교협회에 소장되어 있던 방대한 문건을 발굴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조사 작업은 기존의 정부문서나 외교문서 등에 의존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른바 근대 시기 한국화교 연구에 있어 관련 자료를 다소나마

16) 장용경, 『구술자료의 독자성과 그 수집방법』, 『구술자료 만들기』(국사편찬위원회, 2009), 5쪽 참조.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고, 주로 구술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기 한국화교연구의 각종 결과물들을 기록된 공식문헌 및 실물 자료를 통해 보충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3자나 정부당국이 아닌 화교 본인 스스로 생산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인천이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한반도 전역에 걸친 화교들의 구체적인 역사를 총합하기에는 무리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인천화교와 그들이 거주하는 인천차이나타운(과거 청국 조계지 일대)이 사실상 한국화교사회의 원천이자 중심으로 기능해왔고 현재도 그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는 인천뿐만 아니라 한국화교 전체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핵심적인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앞서도 말했듯이,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가 갖는 핵심가치와 중요성은 그것이 화교 스스로의 생산물이라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화교화인에 관한 조사와 연구의 상당부분은 그 지역 화교화인 연구자들에 의해 중점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화교화인연구의 주요 석학들 대부분이 중국계 학자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내 화교연구자들 가운데 중국계가 차지하는 몫은 극히 한정적이다. 한때, 한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젊은 3, 4세대 화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며 한국화교 연구의 장에 대거 진입한 시기가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¹⁷⁾ 이들 대부분이 석사과

17) 신문염의 「在韓華僑의 經濟에 관한 研究」(경희대학교석사논문, 1974.2), 강덕지의 「韓國華僑의 經濟에 관한 高찰」(성균관대학교석사논문, 1974.2), 추미란의 「在韓華僑의 企業經營에 대한 實證的 연구」(단국대학교석사논문, 1976.9), 담영성의 「朝鮮末期의 淸國商人에 관한 研究」(단국대학교석사논문, 1977.2), 주봉의 「화교들의 문화이식 과정에 있어서의 매체이용 패턴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석사논문, 1985.2), 담건평의 「재한화교의 사단조직에 대한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석사논문, 1985.8) 등이

정을 마치고 현재는 학계에서 물러나 있는 게 현실이다. 추측컨대, 여기에는 상급과정에서 대한 진학이나 교수임용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 등에서 야기되는 화교출신 연구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장벽도 일정부분 개입되어 있었을 것이고, 한국화교사회 전반에 걸친 학문적 저변의 일천함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교 스스로 자신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나아가 본인들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열망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서울 출신의 화교 진유광(秦裕光)이 1979년 9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중앙일보》에 총 75회에 걸쳐 연재한 『화교(華僑)』라고 할 수 있다.¹⁸⁾ 진유광 스스로 말했듯이, 그의 글이 출발하는 지점은 바로 화교와 그들이 구성하는 공동체로서의 화교사회의 진면목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거주국 사회와 동화되지 못한 이질적인 집단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던 화교들의 삶과 그 이유를 한국인에게 이해시키고¹⁹⁾ 동시에 선배화교들의 입을 통해 들었던 한국화교들의 살아온 역사와 사건들 그리고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을 화교후대에게 전해주고자²⁰⁾ 하는데 있었다. 진유광의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발표된 거의 모든 한국화교 관련 학위논문이나 저서, 일반논문 등에서 빼놓지 않고 인용되고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용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및 역사적 사건·사실에 대한 인용이란 점에서 한국화교 연구

대표적이다. 최근에 나온 사보혜의 『만보산사건과 인천 화교배척사건 연구 : 재만한국인과 재한화교의 관계사적 입장에서』(인하대학교석사논문, 2009.2) 역시 마찬가지이다.

18) 이 연재물은 1980년부터는 당시 국내 유일의 화교신문이었던 『韓中日報』에 총 124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1983년에는 타이완에서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란 이름의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19) 송승석, 『화교, 번역, 정치적 글쓰기 : 진유광의 한국화교 서사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2013, 327쪽 참조.

20) 秦裕光, 앞의 책(1983), 『前言』, 1쪽 참조.

에 있어 어느 정도 공인된 하나의 교과서이자 일차 사료에 준하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²¹⁾ 아마도 진유광의 『화교』는 130여 년에 걸친 한국화교 거주역사에서 화교 개인이 집필한 거의 유일한 ‘화교 역사서사’일 것이다.²²⁾ 그러나 문제는, 진유광의 글이 필자 개인의 면밀한 조사와 나름의 연구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주로, 개인적 경험, 선배화교들의 전언, 사건과 사실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글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자서전 성격의 회고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개인의 기록이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것이다.

이에 반해, 인천화교협회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들은 화교 그 중에서도 화교사회의 실질적 공공기관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화교협회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는 점에서 진유광의 그것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는 당시에 작성되었던 개인 혹은 단체 간의 서신, 각종 단체의 장정, 협회의 공식적인 기록이나 공문, 일지 그리고 각종 사진, 지도, 인감 등과 같은 실물자료들을 망라하고 있어 그야말로 일차사료에 값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다. 가령, 『인천청국거류지세표(仁川淸國居留地地稅表)』나 『삼리채청상지연세표(三里寨淸商地年稅表)』와 같은 인천청국조계의 운영이나 분포와 관련된 청국조계 관련문서, 『여선중화상회연합회(旅鮮中華商會聯合會)』 관련 장정과 같은 중화상회(中華商會)의 각종 장정(章程), 『쓰레기 및 오물 청소 계약서(塵芥及汚物掃除契約書)』, 『위생연단영수증급장정오관(衛生捐單領收證及章程五款)』, 『피병원방옥공사합동(避病院房屋工事合同)』처럼 화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생

21) 송승석, 앞의 논문(2013), 329-330쪽 참조.

22) 물론, 이외에도 화교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펴낸 결과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杜書溥가 펴낸 『仁川華僑教育百年史』(2002)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화교의 전 시기, 전 영역에 걸친 저술은 진유광의 글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나 의료 등과 관련된 문서 및 계약서, 이밖에도 각종 등기증명 및 구제(救濟) 관련문서나 중화상회의 운영이나 상업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²³⁾ 비록 이들 자료 특히, 1945년 이전 자료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러는 파편화되어 있고 간혹 자료 자체가 훼손되어 해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공간(公刊)된 정부외교 문서들과의 상호비교 및 대비를 통한다면 그동안 미처 밝혀지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실로 남아 있던 대목들을 상당부분 밝혀낼 수 있고 나아가 궁극적인 해결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독해낼 수 있다면 한중관계사 내지 동아시아 관계사 속의 화교의 위치 등과 같은 거시적인 화교역사 뿐만 아니라 인천화교 나아가 한국화교사회 전체의 경제, 문화, 전통, 관행 등의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화교일상사를 동시에 조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Ⅲ.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의 구성 및 특징

인천대 중국학술원이 인천화교협회에 화교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해당 자료에 접근을 시도했을 당시에는 기본적인 분류는 고사하고 자료를 한데 모아 놓을만한 마땅한 공간도 없는 상태였다. 해당 자료들은 화교협회 사무실 한쪽에 있던 창고나 부속건물, 협회 건물 뒤에 위치한 구(舊) 청국영사관 회의실 심지어는 사용하지 않는 사무용 책상 서랍 등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쓰레기더미 마냥 함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보존이나 분류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더욱이 인천화교협회 임

23)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정희·송승석, 앞의 책(2015), 28-40쪽에 실려 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원진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는 해당 자료의 중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자료들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되고 심지어는 폐휴지로 헐값에 고물상에 팔려나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한중수교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과거 화교들의 반공 관련 활동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들의 경우에는 상당량이 협회 차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소각되기도 했다고 한다.²⁴⁾ 이에 대해서는 인천화교협회 나아가 인천화교사회 전체가 자신들의 기록물을 얼마나 소홀히 다루었는지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 소중한 자료들을 함부로 폐기하거나 소각하도록 수수방관한 인천시 유관기관 전체의 저열한 문화의식·역사의식에도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²⁵⁾

결국, 인천대 중국학술원이 제일 먼저 착수해야 될 일은 화교협회 주변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한 곳에 모으고, 수십 년 혹은 백년이 넘는 자료에 썩어 낱인 두터운 분진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자료의 취합 및 클리닝 작업에 소요된 시간만 해도 족히 석 달이 넘었다. 자료의 분류 및 목록작성 작업은 그 후에 진행해야 하는 일이었다.

자료의 분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대 중국학술원이 해야 할 일은 대략적으로나마 자료 분류의 기준을 임의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자료의 성격별, 연도별로 분류 및 수량 파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초보적인 정리나 기초적인 분류도 되어있지 않고 심지어는 동일 관계에 있는 문건들이 한데 묶여있지 않은 채 분절화,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에서 이를 취합하고 분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24) 이는 화교협회 임원진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젊은 화교들이나 뜻 있는 화교들의 경우에는 과거 협회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하고 있고 애석해하고 있다.

25) 최근 인천중구청은 인천차이나타운 인근에 화교역사관을 건립한다는 명목 하에, 뒤늦게 인천화교사회 및 화교협회에 관련 자료의 기증을 요구했지만 모두가 짐작하듯 결과적으로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 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수행된 분류작업의 결과 다음과 같이, 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의 성격별 분류 및 수량

분 류		수 량	계
문헌자료	공문서	757	1,378
	지도	150	
	서적일반	282	
	연속간행물	62	
	교재	47	
	연감	27	
	보고서	14	
	법전	39	
비(非)문헌자료	사진	1,600	1,641
	인장	40	
	기타	1	
총 계			3,019

인천대 중국학술원이 진행한 성격별 분류 작업의 결과에 따르면, 대(大) 분류상으로는 문헌자료와 비(非)문헌자료로 대별된다. 그리고 문헌자료의 경우에는 공문서, 서적일반, 연속간행물, 교재, 보고서, 법전, 연감, 그리고 지도로 세분화되고, 비문헌자료의 경우에는 사진, 인장, 기타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²⁶⁾ 이 가운데 문헌자료만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적일반

인천화교협회에 소장되어 있는 총 282권의 일반서적은 발간시기만 보

26) 구체적인 수량은 <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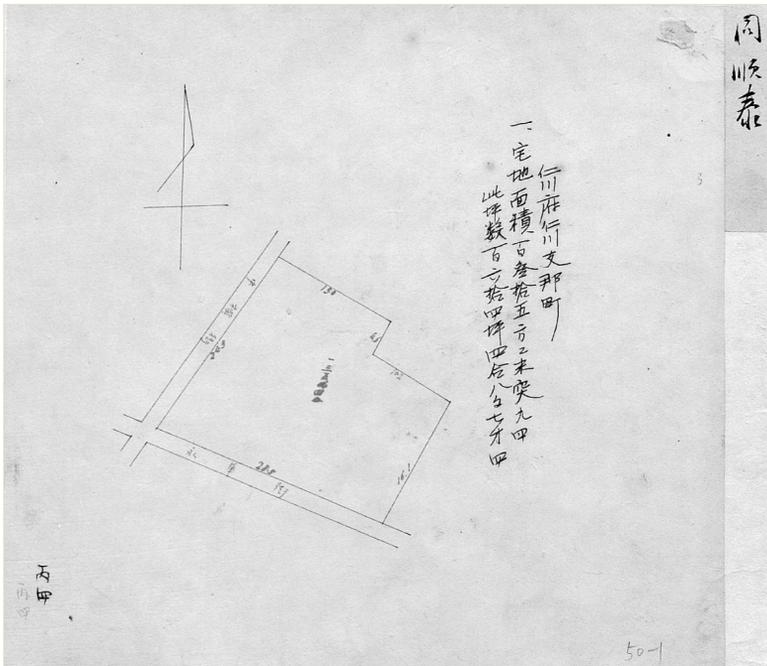
면, 1902년부터 1988년 즉, 근대부터 현대까지를 거의 모두 아우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내역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그 안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가령, 194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의 책은 총5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모두 1902년에서 1906년 사이에 출간된 서적으로 『중국상무지(中國商務志)』, 『공상이재요술(工商理財要術)』 등과 같이 주로 상업이나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추측컨대, 이는 아마도 이 시기 한국화교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상(華商)들이 주로 필요로 해서 구입 혹은 제공받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 시기의 일반서적들은 현재 파악된 바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해당 시기의 책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다는 산일된 것으로 보인다.

1945년 이후 서적의 경우, 특징적인 것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시기 서적들의 성격을 일별하면, 중국 대륙 내에서의 중국공산당의 폭정을 비난하는 『중공은 농민을 어떻게 대하는가?(中共怎樣對待農民)』, 『중공의 토지개혁과 중국의 토지문제(中共土改與中國土地問題)』 등과 같은 류의 서적 혹은 타이완 국민당정부 및 장개석 총통의 선정(善政)을 홍보하는 『총리유교류편(總理遺教類編)』, 『대만의 경제건설(臺灣的經濟建設)』 등의 서적 따위가 대부분이다. 이는 당시 한국화교를 관리하고 있던 대만 중화민국정부가 반공이라는 국책과 소위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자유주의 진영의 상대적 우위성을 화교사회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제공한 것임이 분명하다.

2. 지도

총 150장이 소장되어 있는 지도의 경우, 세목별로 보면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일본인 측량기사 후쿠다 규조(福田久藏)가 작성한 인천부(仁川府) 지나정(支那町)²⁷과 신정(新町)²⁸ 내 화교 지주들의 택지면적과 가옥형태를 명기한 일종의 측량도면이다. 애석하게도 측량도

면 작성 연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앞뒤
정황상으로 볼 때, 1908년에서 1914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소장되어 있던 관련 서류지판계 고문서²⁹⁾에 따르면, 당시 화교지주들이
후쿠다에게 측량비까지 지불하면서 해당 측량도 작성을 의뢰했던 것은 자
신의 부동산 등기를 인천영사관에 신청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즉, 택지
별로 측량도를 작성해서 3장은 본인이 소장하고, 화상상회(華商商會)와
인천영사관에 각각 1장씩의 부분(副本)을 전달했던 것이다.



27) 일본식민정부는 과거 청국조계 지역을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지나정'으로 명명했다.

28) 지금의 인천 신포동 일대를 가리킨다.

29) 『平面測圖費金』(中華商務總會)를 말한다.

위의 측량도면은 인천에 소재한 동순태(同順泰)의 소유의 택지를 예시한 것인데, 이 안에는 측량도와 함께 지주의 이름(상호 혹은 개인)과 위치, 택지면적이 상세하게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인천화교협회에 소장되어 있는 이와 같은 측량도면은 신정(新町) 지역(총 6장)까지 포함해 총 60장인데, 이 가운데 『인천부 지나정 지주명단』³⁰⁾을 참고해 지나정 지역(총 54장)만을 조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당시 청국조계지역 전체의 지도가 완성된다.

아마도 당시 일본식민정부가 작성한 해당 지역의 지적도까지 확보한다면, 아래 그림은 보다 완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장 지도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바로 지금의 인천시 도화동³¹⁾

30) 『仁川府支那町地主名單』(中華會館) 총4면.

에 위치해 있던 중화의지(中華義地) 즉, 중국인공동묘역의 평면측도이다. 이 역시 후쿠다 규조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총 7장이 남아있다. 이 도면들을 종합해 보면, 중화의지의 소재지, 면적 등이 함께 부기되어 있어 당시 중화의지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찰할 수 있고, 더군다나 새로운 부지 매입에 따른 별도의 도면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중화의지의 조성 및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³²⁾

3. 연속간행물 및 기타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1910년대의 『상무관보(商務官報)』, 1920년대의 『농상공보(農商公報)』, 『중국노공(中國勞工)』, 『화교상보(華僑商報)』 그리고 1950년대 타이완에서 발행된 『중국청년(中國青年)』이나 『중앙(中央)』(월간·반월간) 등이 있다. 간행물의 제명만 보더라도, 한국화교사회의 변화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다. 가령, 1910년대의 간행물로는 『상무관보』만이 유일하게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한국화교사회가 화상 중심의 사회였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1920년대부터 『농상공보』나 『중국노공』과 같은 간행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시 화농(華農)과 화공(華工)이 급격히 증가했던 1920년대 당시의 사회상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국내 화교학교의 효시격인 인천화교소학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교재의 경우에는 대부분 20세기 초에 학생들이 배우던 것으로 추측되는 데³³⁾ 『전학(電學)』, 『산학(算學)』, 『물리학』, 『화학』 등의 교재가 주로 남

31) 당시 행정편제상으로 보면, 仁川府 多所面 禾洞 혹은 仁川府 多所面 牛角洞이다.

32) 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 가운데 이 도면 및 자료들을 활용해 인천중화의지를 연구한 논문과 책이 최근에 발간되었다. 송승석, 『인천중화의지의 역사와 그 변천』, 인천학연구 22(2015.2)와 송승석·이정희, 『인천에 잠든 중국인들』(학고방, 2015)을 참조하기 바란다.

33) 교재의 발간연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교재 내용상으

아 있다. 이는 당시 화교학교의 교과과정이 주로 과학, 수학 등 서구의 근대적 학문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것을 능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주로 192, 30년대에 발간된 보고서의 경우에는 전란에 휩싸인 조국의 난민 구제 상황을 알리는 『상해난민진구임시구제회보고(上海難民戰區臨時救濟會報告)』(1932)나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인천세관이 발한 『관내무역요람』 등이 잔존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대와 중화민국 시기, 해당 정부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법전과 1960년대 세계화교경제현황을 일별할 수 있는 『화교경제연감(OVERSEAS CHINESE ECONOMY YEAR BOOK)』 등도 있다. 이는 해당 시기, 조국정부와의 관계 혹은 해외화교화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제공되거나 구입한 것들이 아닐까 한다.

4. 공문서

인천화교협회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자료 가운데 분량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문서이다. 아래의 <표 2>는 인천화교협회 소장 공문서를 성격별·연도별로 분류하고 그 수량을 표시한 것이다.

<표 2>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에 대한 성격별/연도별 분류표

분류	수량 (건/권)	1900 년대	1910 년대	1920 년대	1930 년대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미상
구·회무서류	64	1	23	3			22	11			1	5
회의서류	21						16	5				
조해·비안서류	28		4				16	8				
섭외서류	11						6	5				

로 볼 때,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에 사용되던 것으로 추측된다.

분류	수량 (건/권)	1900 년대	1910 년대	1920 년대	1930 년대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미상
사보서류	5						4	1				
안녕·치안서류	8						5	2				1
수발문건	21			1			7	5	8			
일기	47						2	9	15	15	6	
수거	14							14				
호구서류	91						20	32	38	1		
경축기념서류	16						8	7				1
선전·문화서류	14						7	5	1			1
선거서류	6		2				1	3				
예규	4		1				2					1
구제서류	12				1		8	3				
반업서류	70						38	27	5			
농상공서류	51	2	21	2	4	2	9	6				5
화교학교	11						3	8				
중화의지	9		3				3	1	2			
당무	82		1	1	1	1	54	12	7			5
잡서류	7		1				4	2				

<표 2>에서 보다시피, 공문서는 “구무(區務)·회무(會務) 관계서류”, “회의서류”, “조해(調解)·비안(備案)서류”, “섭외(涉外)서류”, “사보(查報)서류”, “안녕(安寧)·치안(治安)서류”, “수발문건(收發文件)”, “일기(日記)”, “수거(收據, 각종 영수증)”, “호구(戶口)서류”, “경축기념서류”, “선전(宣傳)·문화서류”, “선거(選舉)서류”, “예규(例規)”, “구제(救濟)서류”, “반업(飯業)서류”, “농·상공서류”, “화교학교”, “중화의지(中華義地)”, “당무(黨務)”, “잡(雜)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서류 몇 가지만을 추출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구·회무 관계서류

총 64건(권)의 “구·회무 관계서류”는 초창기 인천중화회관부터 인천화교자치구, 인천화교협회에 이르는 인천화교사회의 공적 조직³⁴⁾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940년대까지의 문서는 중화회관이나 중화상무총회(中華商務總會)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한 『中華會館收支決算書』, 『進支流水部』나 상기 단체가 주체가 된 각종 계약서(『醫務囑託契約』, 『菜市場隋鴻■合同 野菜市場補修工事契約 鴻興木廠-仁川中華商務總會』(1914) 등) 그리고 각종 세금 및 금융 관련 증서(『地方稅(府稅)關係』, 『十八銀行仁川支店當座預金入金票』 등)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수가 19건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일목요연하게 책으로 엮인 것이 아니라 건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상의 한정된 자료를 통해서도, 당시 중화회관이 일본의 제18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사실상, 인천 신정 야채시장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인거류지의 위생이나 의료와 같은 영사관 등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까지 전담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구·회무 관계서류의 대부분은 195, 60년대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이 시기의 문서들은 비교적 완전한 책으로 묶여 있어 당시의 인천화교자치구나 인천화교협회의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내역, 각종 장부, 업무

34) 초창기 중화회관, 중화상무총회(中華商務總會), 화상상회(華商商會)와 같은 1945년 이전의 단체들은 사실상 민간조직의 성격이 보다 강했다면, 해방 이후의 인천화교자치구나 인천화교협회의 경우에는 중화민국대사관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관리, 지원 하에 운영되었기 때문에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이 좀 더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처리규칙 심지어 해당 조직 직원들의 출근부나 조직 내 비품대장, 비상연락망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 상기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② 조해·비안 관계서류

화교 내부 간의 다툼이나 화교와 거주국 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각종 분쟁 및 소송 관계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을 다룬 이 서류는 총 28건(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교 내부 간의 다툼은 주로 가족 간(모자지간 혹은 형제지간)의 재산분쟁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특히 할만한 것은 재산분쟁이나 유산상속 문제를 법정소송으로 끌고 가기 전에 화교협회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화교사회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화교와 거주국 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이나 법정소송은 거개가 토지 관련 소송이나 건축물 혹은 가설물 압류 과정에서의 다툼과 관련된 것들이다. 가령, 1950년대 이승만 정권에 의해 행해진 이른바 ‘창고 봉쇄령’에 따라 보세창고를 압류당한 화상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근대사에서 간혹 언급되는 오례당(吳禮堂)과 관련된 문서이다. 사실, 오례당은 그 지명도와는 달리 화교사회 내에서는 그동안 별달리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³⁵⁾ 따라서 오례당과 관련해 공개된 문서나 기록들은 1913년 《매일신보》에 4회에 걸쳐, 그의 부인 아말리아 아마도르(Amalia Amador C. Woo)와 그의 조카 오로생(吳魯生) 간의 유산상속분쟁을 다룬 연재물³⁶⁾ 외에는 거의 찾아볼

35) 실제로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화교들 가운데 오례당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거의 없다. 심지어, 진유광의 앞의 글에서도 오례당에 대한 언급은 없다.

36) 「不知鹿在誰手(一)」, 《每日新報》 1913.2.8. 「不知鹿在誰手(二)」, 동 신문, 1913.2.9, 「不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가운데, 오례당의 부인과 조카 간에 오간 영문서신, 삼리채(三里寨) 청상지(淸商地)에 소재한 오례당 농원(農園) 관련 문서 그리고 이 조해관계서류에 포함된 오례당의 유언장 및 병원진단서(『吳禮堂遺囑書·診斷書』)³⁷⁾ 등이 발견되어 오례당 연구에 다소나마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일기

일기는 일종의 화교협회 업무일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소장되어 있는 것은 1957년부터 1996년까지 총 47권이다. 중간에 누락된 연도도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도 이 일기는 인천화교협회 서기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매일 매일의 협회 업무현황을 단순한 개조식 서술로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치부할 수도 있지만, 당일 협회 방문자 현황이나 협회와 외부기관과의 접촉상황 그밖에 각종 소소한 사건들을 일일이 메모해둔 것이라 협회 내부의 상황과 대외교류 현황, 협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④ 호구등록신분증명서류

총 90권 1건이 소장되어 있는 호구서류는 공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신분증명서, 신분발급대장, 인천화교 호적부, 외국인등록증명서, 화교등기신청대장, 거주허

知鹿在誰手(三), 동 신문, 1913.2.11, 『백만원 사건 해결』, 동 신문 1913.2.27 참조.

37) 아마도 오례당의 유언장 및 병원진단서는 부인과 조카 간의 법정소송에서 소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증명서 뿐만 아니라 화교들의 전출입, 출생·사망신고서, 연도별 인구통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보면, 화교의 국내외 이동현황, 개인의 신분 및 원적, 직업, 나이, 성별, 주소, 가족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 심지어 결혼이나 이혼경력, 귀화 여부까지도 일일이 판별해낼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한다면 연도별 화교인구현황 및 거주상황의 변화를 총괄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서류는 화교 개인의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극히 민감한 문서들이라 전면적인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난점이 있다. 인천화교협회가 당초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의 공개를 극히 꺼려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 서류의 공개가 혹여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상의 다소간 한계를 감내하더라도, 인천화교의 이동 및 거주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그에 값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진 문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유일하게 근대 시기의 문건이 한 건 있는데, 바로 1911년 당시 청국조계에 거주하는 화교들에 대한 호구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宣統三年西橫街·中橫街·界後街華僑戶口調查』라는 문건이다. 총 81면으로 구성된 이 호구조사표는 근대 인천화교의 거주현황 및 개인의 이력 및 신분 등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⑤ 선전문화 및 경축기념 그리고 당무 관계서류

인천화교사회는 중화민국 성립 이후, 줄곧 국민당 주조선직속지부(駐朝鮮直屬支部) 인천분부(仁川分部)에 해당했고, 해방 이후에도 중국국민당 주한직속지부(駐韓直屬支部) 인천분부의 역할을 해왔다. 현재 인천화교협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가운데 전자의 당무(黨務)에 해당하는 것은 3건이고, 후자의 당무에 해당하는 것은 총 79권(혹은 건)이다. 그런데 공교롭게

계도 중일전쟁 이후 특히, 왕정위 정권 시기인 1940년부터 1945년까지의 당무 관련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도 한국화교사회는 왕정위 정권의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정위 남경국민정부 혹은 그 당과 관련된 문건들이 필시 존재했을 것인데,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아마도 정치적 문제를 고려한 화교사회 지도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해방 이후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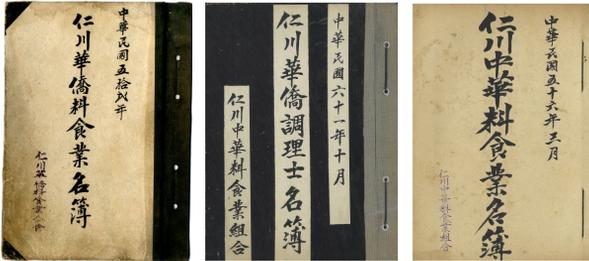


해방 이후, 당무 관련 자료가 총 79건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 남아 있다는 것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화교사회에 대한 대만 장개석 국민정부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는 국민당입당원서 및 당원명부, 각종 반공집회 및 분임회의, 분부 조직현황, 당원교육, 정부 지시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반면, 1980년대 당무 관련 자료는 전무한데, 화교협회 임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는 관련 당사자들 상당수가 현재도 생존해 있고, 화교사회의 교령(僑領)으로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수교 이후 서둘러 폐기했다고 한다.

선진문화 관계서류나 경축기념서류 역시 대부분이 국민당의 반공국책에 대한 홍보 및 쌍십절이나 장개석 탄신기념식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란 점에서, 화교사회 특히, 화교협회 입장에서는 위의 당

무 관계서류 등과 함께 매우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비교적 연배가 높은 화교협회 전직 임원들이 협회 소장 자료의 공개를 극구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상의 자료들 때문이었다.

⑥ 반업서류



주지하다시피, 한국화교사회는 상업과 무역업에 종사하는 화상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물품을 조선 혹은 한국에 내다파는 수입무역이 주를 이루어왔다. 무역업은 1930년대 이후, 일본과 중국 간의 잇따른 무력충돌로 장기간 침체를 맞기도 했지만, 해방정국에서 다시금 그 세력을 회복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절정기를 구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이른바 민족자본의 확립을 내세운 이승만 정권에 의해 ‘창고봉쇄령’, ‘수입할당제’, ‘수입대체공업화정책’ 등의 일련의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화교무역업은 재차 급격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후 다시는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몰락한 무역업자들이 대거 중화요식업으로 업종변환을 하게 되면서 요식업의 비중은 급격히 늘게 되었고, 심지어 1970년대 이후에는 전체 한국화교 가운데 70% 이상이 크고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른바 ‘중국집 사장님’이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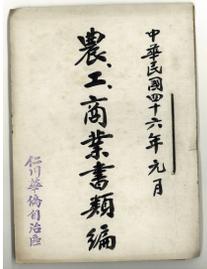
따라서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가운데 ‘반업’ 즉, ‘요식업’과 관련된 자

료가 세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등의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반업 서류 중에는 음식점의 개·폐업 상황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자료들(『開業·休業·廢業屆』 등)도 있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화교들의 명부라고 할 수 있는 『인천화교요식업명부(仁川華僑料食業名簿)』나 『인천화교조리사명부(仁川華僑調理士名簿)』 등도 다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당시 중국음식점이 상당기간 주류업조합(酒類業組合)에 속해 있어 유흥세(遊興稅)를 납부해야 했다는 사실이다. 지금으로서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당시 화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각종 제약과 차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중국음식점에 높은 세금이 부과된 탓인지, 해당 서류의 상당수는 인천세무서장, 인천중구청 위생과 등에 보내는 세금 관련 진정서나 별도의 『세금교섭문서류(税金交涉文書類)』 따위이다. 이외에도 인천화교반업협회 회원들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에 관련된 자료들이 보이고 심지어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들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인천화교반업협회회의결석벌칙(仁川華僑飯業協會會議缺席罰則)』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1945년 이전 요식업과 관련된 자료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1956년 자료 가운데 『중화루·공화춘·평화각 원천과세신고(中華樓·共和春·平和閣源泉課稅申告)』를 보게 되면, 인천의 대표적인 중화 요리집이라 할 수 있는 중화루나 공화춘의 이력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이들 음식점의 해방 이전의 영업상황도 간접적이거나 확인해볼 수 있다.³⁸⁾

38) 이외에도, 인천화교협회에 소장되어 있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그동안 1908년 설과 1918년 설로 의견이 분분했던 중화루의 창업년도도 명확히 1915년도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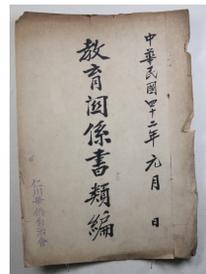
⑦ 농·상·공업서류



총 51건(권)이 소장되어 있는 농·상·공업서류는 상대적으로 볼 때, 결코 많은 분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특기할 만한 것은 1940년대까지의 자료가 총 31건으로 근대시기의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일 것이다. 가령, 당시 무역상들이 개설한 당좌예금 대장이나 화상들이 각종 공채(公債)를 매입하고 받은 영수증, 『인천화상해산조합장정(仁川華商海產組合章程)』, 『중한통항무역조례(中韓通航貿易條例)』 등과 같은 무역과 관련된 제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인천화상상회상황보고(仁川華商商會狀況報告)』, 『인천청국거류지세표(仁川淸國居留地地稅表)』, 『삼리채청상지연세표(三里寨淸商地年稅表)』 등은 당시 중국(청국)인 거류지 현황 및 화교경제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문건들이다. 195, 60년대 관련 자료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화교소유지산조사부(華僑所有地產調查簿)』, 『주안동화교토지소유현황(朱安洞華僑土地所有現況)』, 『토지양도계약서(土地讓渡契約書)』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문서나 농업에 관련된 문서들이 다수이다. 반면, 상업과 관련된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는 당시 주력업종이었던 요식업 관련 자료들이 ‘반업서류’로 별도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⑧ 화교학교 및 중화의지 관계서류

인천화교소학이 한국 최초의 화교학교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아울러 인천화교학교는 인천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화교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젖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교협회 내에 이와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의외이다. 1945년 이전의 자료라고 해 봐야 겨우 2건에 불과하고, 그마저



도 학문적 효용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후의 자료 역시 대부분은 졸업생 명부나 학교건물의 증축 내지 신축과 관련해 기부금을 낸 화교들의 명단이 대부분이다. 처음엔 이처럼 화교교육이나 화교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은 화교학교에 별도로 소장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화교학교 내에서도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 화교학교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료가 한국전쟁 시기에 소실되었다는 것이다. 문헌자료는 많이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신, 학교 및 학생과 관련된 사진이나 기타 실물자료는 상당부분 발굴한 것에서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중국인공동묘지인 중화의지와 관련된 문헌자료는 총 9건(권)으로 그 수가 매우 적지만, 앞서 언급한 중화의지 측량도면과 함께 매우 귀중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사료들로 채워져 있다. 가령, 인천외국인묘지에 안장된 유일한 중국인 오례당의 묘비 건립과 관련된 아말리아의 몇 통의 서신 외에도, 1914년과 1915년 자료인 『매화장인허증(埋火葬認許證)』 등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중화의지의 소재지에 대한 확인을 가능케 하는 사료들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친 화교공동묘지 이전과 관련된 인천선인학원과의 분쟁 및 법정소송 관련 문서는 인천중화의지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대한 문건들이다. 이밖에도, 중국인공동묘지에 매장된 매장자 명단을 통해서는 인천화교뿐만 아니라 한국화교의 출신지, 분포현황 등을 밝혀내는데 간접적인 방증자료로 소용될 수 있을 것이다.³⁹⁾

이상으로, 인천화교협회에 소장되어 있는 방대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39) 인천중국인공동묘지에는 인천화교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의 화교들도 다수 매장되어 있다.

자료의 구성 및 특징, 소장 현황 등을 대략이나마 살펴보았다.

물론, 총 3,000여건에 달하는 문헌·비문헌자료 전문가 연구의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부는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 그 훼손의 도가 심해져 도저히 판독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문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판별해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더욱이 자료에 대한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까닭에 1945년 이전 근대시기의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 있다는 것은 근대 한국(조선)화교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실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나마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195, 60년대 자료들이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근대시기 조선화교 연구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지금의 한국화교 연구는 인류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현장조사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그 중간 지대라 할 수 있는 195, 60년대 한국화교 연구는 일종의 공백처럼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본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는 그 공백을 얼마간은 메울 수 있는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문서 등에 의존한 근대 화교사 연구나 주로 구술에 기대하고 있는 현재의 화교연구에 있어서도 화교 스스로가 생산한 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고 또 그 자료를 통해 자신의 현장조사 작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도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가 갖는 의미와 그 가치는 바로 이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 자료의 활용방안

인천화교협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

로,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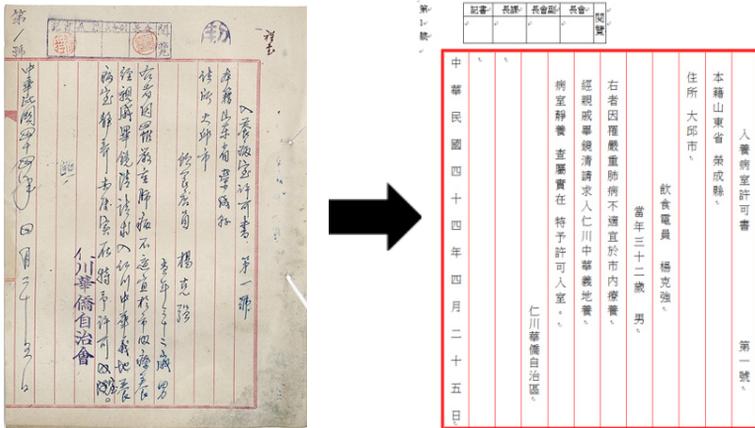
당초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이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에 접근을 시도한 것은 2010년이었고 그 결실을 본 것은 2013년이였다. 그 기간 동안 중국학술원은 인천화교협회로부터 세 번의 단호한 거절을 맞보았고 결국 네 번째 시도 끝에 협회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⁴⁰⁾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친 지난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은 인천화교협회의 나름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어느 지역 화교협회도 소장 자료를 대외에 개방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 화교협회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둘째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호구서류나 당무서류처럼 외부에 개방할 시에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거나 정치적으로 난감한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는 화교사회로서는 나름 일리가 있는 판단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학술원이 협회 소장 자료를 조사하기까지는 인천화교협회를 비롯한 인천화교사회 전체의 격론과 논란은 불가피했던 것이고 신중한 판단을 위한 시간 소요는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중국학술원으로서 인천화교사회가 보내준 신뢰에 상응하는 자료의 활용방안 및 보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전제는 무엇보다 한국화교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인천화교 나아가 한국화교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및 한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하에, 자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아울러 원본자료의 영구적 보존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했다.

첫째,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관련 연구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함으로써, 한국화교에 대한 연구를 가일층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40)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과 인천화교협회 쌍방은 2013년 11월 12일 <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 전수조사 및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조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의 분류체계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을 재차 고민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빠른 수정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공개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공개 시점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줄로 믿는다. 아마도 이러한 작업은 중국학술원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나 학자들의 도움이 절실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필사(筆寫)로 된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한 판독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이는 자료를 접하는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⁴¹⁾ 이를 위해, 중국학술원은 인천화교협회 임원, 인천화교학교 전·현직 교사들과 공동으로 ‘자료판독 및 연구를 위한 모임’을 조직해 문서해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실제 작업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교 스스로 자신의 역사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화교들도 이에 호응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실제 작업 현황에 대한 하나의 예시이다.



41) 물론, 판독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도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둘째, 이번 작업을 통해, 그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구성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해왔던 화교들에게 본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한다. 앞서 문서해독작업에 화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현재 소장 자료 조사의 후속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인 소장 자료의 발굴⁴²⁾에도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될 때, 한국의 주류사회가 화교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도 점차 불식될 것이고, 나아가 한국화교가 한중교류의 실제적인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여지도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학술원은 자료 원본의 영구적 보존을 위해, 자료보존을 위한 약품처리, 진공포장 등의 작업을 진행했고, 보존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수장고(收藏庫)를 설치했다. 현재, 인천화교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 수장고는 ‘인화재(仁華齋)라 명명되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화교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화교들의 염원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초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 기억을 되살리는 법이다. 화교들의 기록은 그 자체로 삶이고 문화이다. 또한 그 삶과 문화가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이 곧 역사이다.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가 그에 값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42) 현재 중국학술원은 일차적으로 화교들의 사진을 모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화교들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의 화교들도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이 소식을 접한 대만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화교들도 자신의 오랜 앨범을 우편으로 보내오고 있다. 이는 모두 화교들이 자신들의 역사구성에 얼마나 갈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중국학술원은 일차적으로 수집한 사진을 중심으로, 한국화교생활사사진전 “서랍 속에서 기억을 찾다”를 개최하기도 했다.

주제어 :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 인천차이나타운, 한국화교, 인천대중
국학술원, 인화재

(논문투고 : 2015.12.1 / 논문심사완료 : 2015.12.10 / 논문게재 확정일 : 2015.12.12)

참고문헌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 仁川府廳 編纂, 『仁川府史』(上), 1933.
- 盧冠群, 『韓國華僑經濟』, 海外出版社, 1956.
- 張兆理, 『韓國華僑教育』, 海外出版社, 1957.
- 華僑史編纂委員會, 『華僑誌—韓國』, 1958.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舊韓國外交文書·淸案』, 1971.
-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972.
- 신문염, 『在韓華僑의 經濟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석사논문, 1974.2
- 강덕지, 『韓國華僑의 經濟에 관한 高찰』, 성균관대학교석사논문, 1974.2.
- 추미란, 『在韓華僑의 企業經營에 대한 實證的 연구』, 단국대학교석사논문, 1976.9.
- 담영성, 『朝鮮末期의 淸國商人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석사논문, 1977.2.
- 秦裕光, 『華僑』, 《중앙일보》, 1979. 9. 17.
-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1983.
- 주봉의, 『화교들의 문화이식 과정에 있어서의 매체이용 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논문, 1985.2.
- 담건평, 『재한화교의 사단조직에 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논문, 1985.8.
- 杜書溥 編著, 『仁川華僑教育百年史』, 2001.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2007.
-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 : 冷戰體制と「祖國」意識』, 三元社, 2008.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譯註 『仁川港關草』(上), 2009.
- 장용경, 『구술자료의 독자성과 그 수집방법』, 『구술자료 만들기』, 국사편

찬위원회, 2009.

사보혜, 『만보산사건과 인천 화교배척사건 연구 : 재만한인과 재한화교의 관계사적 입장에서』, 인하대학교석사논문, 2009.2.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譯註 『仁川港關草』(下), 2010.

송승석, 『‘한국화교’ 연구의 현황과 미래—동아시아 구역 내 ‘한국화교’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55호, 2010.

중구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중구사』(상), 2010.

김희신, 『근대 한중관계의 변화와 외교당안의 생성 : 『淸季駐韓使館保存檔』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0집, 2011.

송승석,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인천화교 손덕준의 가족이야기』, 학고방, 2012.

송승석, 『화교, 번역, 정치적 글쓰기 : 진유광의 한국화교 서사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2013.

이정희·송승석,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 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고방, 2015.

송승석, 『인천중화지의의 역사와 그 변천』, 인천학연구 22, 2015.2.

송승석·이정희, 『인천에 잠든 중국인들』, 학고방, 2015.

关于发掘“人川华侨协会所藏资料”的小考

一 以资料的史料价值、构成及活用方案为中心

宋承錫

本論文的目的在于通過最近新發掘出的“仁川華僑協會所藏資料”的一次性分析，對其資料的構成和內容及史料價值和活用方案試圖初步的敘述。相關韓國華僑的現有的材料大部分是政府外交文書。在外交關係上，觀察韓國華僑的直接間接情況時，會有很大的幫助。但是，要想考察當時華僑的具體生活狀況或家常時，會有一定的局限。因此，研究韓國華僑的學者們爲了克服資料不足的困難，不得不進行針對華僑的口述或問卷調查等現場調查。整理口述史可以補充文獻史料的制約和空白，并能生產出近現代歷史資料。在拓寬相關研究範圍的意義上看，是一件不可忽視的工程。問題在于口述史里時常包含着個人的記憶和集體事件相互沖突的可能性。因此，很難確保其正確性、客觀性、公式性。

關於近代韓國華僑的研究只能依據已有的政府文書和外交文書。“人川華僑協會所藏資料”的發掘多多少少補充了相關材料，并對基本上以口述及現場調查的方式進行的韓國華僑研究的各種結果，提供了通過正式文獻和實物資料來補充及驗證的機會。就這一點來看，是非常有意義的工作。上述資料是華僑親自整理出來的產物，因此也是掌握有形的、微觀的華僑生活像的核心資料。

總而言之，能够系統地整理并解讀“人川華僑協會所藏資料”，可以同時俯視韓中關係史以及東亞關係史中的華僑的位置等宏觀的華僑歷史乃至仁川華僑及韓國華僑社會整體的經濟、文化、傳統、慣行等微觀的、有形的華僑家常。

關鍵詞 : 仁川華僑協會所藏資料, 仁川中華街, 韓國華僑, 仁川大中國學術院, 仁華齋